

사 례 연 구

2005 책 읽는 서울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운동'에 동참하며



문명자*

2004년에 이어 2005년에는 '책 읽는 서울' 사업으로 도서관을 중심으로한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운동'을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지난 7월 21일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사업 지원' 신청 접수를 받아 그 중 16개관을 선정 50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사업비를 차등 지원한 바 있다. 그 중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던 서울특별시립어린이도서관의 다채로운 행사 결과를 본 지에 소개한다. ■ 편집자 주

우리 "어린이도서관"은 1979년 시립아동병원을 인수받아 개관하였으며 이용자의 접근성이나 시설면에서 최근 만들어진 도서관과 비교하여 만족하다고는 할 수 없는 형편이다. 그러나 20만 권이 넘는 소장도서와 1회 8권의 대출, 공원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어린이들과 함께 성장한 세월의 힘 때문인지 개관 당시에는 어린이만 이용하는 도서관에서 현재는 온 가족이 함께 이용하는 도서관으로 탈바꿈해 가며 지속적으로 이용자수와 대출책 수가 늘어나고 있다.

우리도서관이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행사에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배경에는 10여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제시하기도 하였지만, 도서관에서 그동안 시행해 왔던 어린이프로그램의 성공률과 중요성의 상관관계를 인식하여 기본계획을 세웠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축박한 일정 속에 시작된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행사의 취지를 파악하고 지원받은 행사비를 효과적으로 집행하며 성공적으로 이끌어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갖고 우리도서관에서는 주말이용자가 주중이용자 보다 많다는 점과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10월의 모든 일요일에 진행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어떠한 행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몇 번의 내부 회의를 거쳐 결정하였다.

* 서울시립어린이도서관 사서, munmj@hanmail.net

9월초 선정도서의 기준 원칙을 세우고 후보도서를 선정하는 것으로 한 도서관 한 책 읽기가 시작되었다. 도서의 선정기준은 ‘한 도서관 한 책 읽기’의 일반 원칙에 따랐으며 그 외 어린이도서관의 특성을 살려 가족이 함께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 또한 일일 현장학습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현장학습에서 활용할 수 있는 책으로서 한 시간 정도면 읽을 수 있는 책이어야 한다는 틀을 정하였다. 그래서 거론된 후보도서가 ‘아무거나 아저씨’, ‘지붕 낮은 집’, ‘두리날다’, ‘일기 감추는 날’, ‘토끼전’이었으며 2차 회의에서 창비에서 펴낸 이해숙씨의 토끼전을 선정하였다.

선정이유는 ① 토론문화를 이끌어내려는 독서운동에 부합한다는 점 ② 토끼전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되었으며 누구에게나 옛날이야기로 흔히 접할 수 있는 고전이라는 점 ③ 작가 이해숙씨도 토끼전을 고전 비틀기라고 하였으며, 이용자들에게도 우리 고전에 대한 재인식과 읽는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 ④ 여러 가지 문화행사를 다채롭게 진행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운동의 선정도서로 적절하다고 위원 모두가 높은 점수를 주었다.

선정도서가 결정된 후 이미 계획하였던 프로그램을 일부 수정 보완하여 이용자들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나갔다.

평소에도 이용자가 많았기 때문에 내부 이용자를 중심으로 현수막, 리플릿, 지역신문을 통한 홍보, 홈페이지에 팝업창 띄우기, 참가기념품 제공, 책갈피 제작 등으로 홍보하였으나 홍보기간이 아주 짧았고 행사에 대한 이해도가 낮았던 탓인지 관심을 갖고 문의를 하는 열람자는 많았으나 도서관이용자에 비하여 참가자는 예상보다 낮았기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지 않았던 점을 반성하였다.

우리도서관에서 진행하였던 프로그램 몇가지를 살펴보면

㉠ “토끼전 판화 및 도서전시회”

토끼전에 수록된 김성민의 판화 20점을 창비에서 인쇄물로 제공 받았고, 도서관은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발간되었던 관련 자료를 모아 함께 전시하였으며 호응도가 높아 12월말까지 연장하여 전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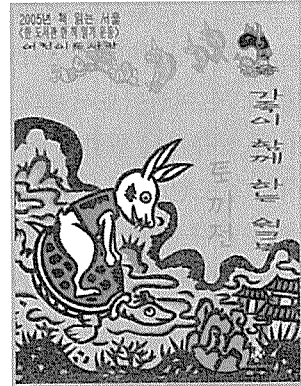


〈판화전시회〉

㉡ “온 가족이 함께 하는 워크북”

본 사업의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토론문화 조성을 위한 기초교재로 “온 가족이 함께 하는 워크북”을 우리도서관 어머니독서회의 도움으로 제작하였다. 이

교재는 토끼전이라는 한 권의 책에 대하여 토론을 하고 가족 간의 유대감을 증진시키려는 의도로 만들었으며 “우화와 판소리에 대한 소개, 여러분이 감독입니다. 토끼전을 기사로 쓴다면, 만화 그리기, 속담 한마당, 독서퀴즈, 토론준비, 토론하기, 과학 응용하기, 가족과 함께, 등으로 알차게 구성하였다. 워크북 제작 배포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어 책자 형태로 미리 제작하지 않고 요청받은 것에 한해서 제본하였다.



〈온가족이 함께 보는 워크북〉

㉠ “공개토론회”

어머니독서회 주최로 진행된 공개토론회에서는 선정된 ‘토끼전’을 시대의 상황에 따라 분석하고, 출간된 각종 토끼전과 비교하며, 책과 함께 어린이와 해 볼 수 있는 독서활동 소개 등 참석한 청중들이 감동받을 정도의 수준이었으며 토론자로 나온 분들의 진행방법이나 내용, 준비물 등 모든 면이 너무나 충실하였기에 많은 이들이 함께 할 수 없었음이 안타까움으로 남아있다.

㉡ “가야금과 함께 하는 토끼전”

행사 당일 연주자의 사정으로 행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 행사에 참가하려는 열람자는 무척 많았지만 직원들이 동분서주하여 이용자들의 불만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토끼 관련 영화로 ‘피터래빗 이야기’ 상영, 연주자의 CD와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연주회티켓 우편 배부, 참가기념품 증정 등으로 대처하여 열람자의 이해를 받아내었다.

㉢ “도전골든벨”

독서퀴즈는 도서관 앞 넓은 잔디밭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행사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초등학교 어린이에게 “토끼전” 한 권의 내용을 가지고 퀴즈를 진행하기 때문에 고난도의 문제를 출제하였다. 물론 행사를 준비하면서우리 어린이도서관 독서회 어린이를 대상으로 “모의 도전골든벨”을 실시하였을 때 굉장히 높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정작 행사를 실시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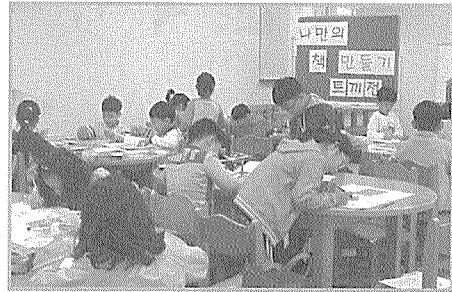


〈도전골든벨〉

초반부터 많은 탈락자가 나와 몇 차례 패자부활전을 치러야했다. 도서관 마당에서 학부모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된 프로그램인 관계로 가족이 함께 즐겁게 참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④ “책사랑 릴레이”

10월 한 달간 이용자의 신청을 받아 대출한 책을 회수하여 행사가 끝난 11월에 한 세대 한 권을 원칙으로 배부하는 행사였다. 확보한 도서 100권을 신청자들에게 배부하여 이웃들과 함께 돌려 읽도록 함으로써 지역사회 독서기반 구성에 일익을 담당하리라 본다. 이 이외에, 세상에 하나 뿐인 토끼전을 만들어 전시까지 하고 있는 “나만의 책만들기”, 토끼전을 읽고 만화로 표현해 본 “만화(12컷)를 통한 독서감상 표현”, 색동어머니회의 협조로 진행된 연극공연 “별주부전”은 성황리에 운영된 프로그램들이었다.



〈북아트 “나만의 책만들기”〉



〈연극공연 “별주부전”〉

전체적으로 유아용 프로그램 참여도가 높았으며, 고학년이나 학부모를 대상으로 했던 프로그램의 호응이 낮았다. 도서관의 홍보도 부족하였으며 아직은 사회전반 토론문화에 대한 기반이 갖춰지지 않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남아 있어 우리들이 끊임없이 노력해서 보충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 생각한다.

도서선정 또한 공개적으로 진행하여 홍보효과와 더불어 이용자들의 관심 유도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 사업을 연중사업계획으로 진행할 수 있다면 공공도서관의 능동성과 적극성을 구현시키고, 책 읽는 사회 구성에 큰 역할을 하리라 본다. 그동안 독서의 달이나 도서관 주간 등에 습관적으로 연속하여 같은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 타성에 젖어 획기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 내지 않았으나 이 사업은 별도의 예산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다채롭게 진행할 수 있었기에 사서들의 창조력을 개발하여 이용자와 가까이 할 수 있는 신선한 프로그램을 개발해내려는 참여의욕의 발굴과 함께 도시의 전체 도서관이 연계해서 행사를 지속적으로 진행시켜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